

7일 뉴욕서 타계한 김보현 화백



조선대 미대 설립 기틀 다지고 광주를 사랑한 '현대미술 거장'

지난 7일 향년 97세의 일기를 끝으로 눈을 감은 고(故) 김보현(미국명 Po Kim) 화백은 '조선대 미대'의 산파였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고인은 1946년 조선대 개교와 함께 설립된 미술대학에서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선대 미대의 기틀을 다졌다.

지난 2010년 5월 화업 60년을 기념해 조선대미술관에서 열린 '김보현-자연의 속삭임'전을 찾은 김 화백은 "조선대 미술학과 설립 초기에 강의실이 부족해 증심사에 천막을 치고 학생들과 그림을 그렸고, 밤이면 인근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공부를 했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1955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 교환교수로 가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한 그는 한국에서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30여년간 한국과 연락을 끊어 한동안 '사라진 화가'로 알려지기도 했다.

광주를 떠난 뒤에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교환교수로 2년을 지낸 뒤 미국에 영구 정착한 김 화백은 생계를 위해 시간당 1달러를 받으며 넥타이 공장에서 넥타이에 그림을 그려 넣는 일을 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막노동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1969년 화가이자 아내인 고 실비아 왈드(Sylvia Wald) 여사를 만나 예술 세계를 나누는 친구이자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했다. 실비아 왈드 여사는 뉴욕현대미술관의 대표 전시였던 '미국 미술 50년전'(1955년)에 참여했을 정도로 일찌감치 뉴욕 화단의 주목을 받은 화가였다.

한국에서 자연주의 계열의 구상화를 그렸던 그는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로 과감하게 화풍을 바꿨다. 그리고 70년대 이후 다시 구상으로 눈을 돌린 고인은 새, 물고기, 말 등 자연의 생명체와 인간의 조화를 자신만의 독특한 색감과 필치로 표현했다. 그림에 대한 열정으로 이국땅에서의 고난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낸 그는 현대미술 중심지인 뉴욕에서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됐다. 지난 2009년에는 아내와 함께 뉴욕에 갤러리를 열기도 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듯 그는 1989년 이후 다시 광주, 그리고 조선대와 인연을 계속 이어갔다. 지난 2000년에 실비아 왈드 여사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400여 점의 작품을 조선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은 "김보현 화백이 광주에 방문했을 때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뉴욕

에 있는 건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광주를 사랑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9일 뉴욕으로 떠난 진원장 조선대미술관장은 "김보현 화백이 재직할 때만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인이 조선대와 맺은 인연은 사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는 고인이 작품을 기증함에 따라 지난 2011년 9월 조선대 내에 '김보현·실비아 왈드 미술관'을 개관했다. 하지만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 김 화백 부부의 작품을 상시로 전시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는 김 화백이 세계적인 작가인 만큼 사후에도 미술관을 지어 광주의 대표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화백의 첫 제자인 김영태 화백은 "김보현 선생과 함께 계곡 등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고, 또 감직하셨던 분이셨다"며 "생전에 조선대에 김보현 선생의 미술관이 지어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무제'

1946년 조선대 개교와 함께

미술대학 전임교수로 학생 가르쳐

작품 400여점 조선대에 기증

광주는 제2의 고향 관심 각별

'폴리 도슨트' 5명 모집

광주비엔날레재단, 13일까지 접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 폴리를 알리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2014 제1기 폴리 도슨트' 5명을 모집한다.

폴리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미술·건축·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또는 영어해설이 가능한 시민, 도슨트 및 해설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경험자들에게는 선발시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은 재단이나 광주 폴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방문 또는 메일(mijeong.an@gwangjubienale.org)로 접수하면 된다.

재단은 앞으로 폴리 도슨트와 함께 폴리 도보투어, 미션투어, 차량투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2-608-426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700만 돌파... 'Let it go' 음원차트 석권·베스트셀러 등극

'렛 잇고, 렛 잇고(Let it go Let it go)'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길거리에서도 커피숍에서 매장에서도 어디서든 흘러나온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영화를 보고 난 사람이면 자연스레 흥얼거리게 된다.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전염된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감독 크리스 벅·제니퍼 리) 열풍이 거세다. 개봉 24일 만에 700만 관객을 넘어선 데 이어 국내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베스트셀러 순위까지 변화시켰다.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가 야심차게 내놓은 '겨울왕국'은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자매 안나와 엘사가 주인공이다. 손만 대면 모든 걸 얼려버리는 언니 엘사와 그녀를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는 동생 안나의 자매애를 그리고 있다. 특히 귀에 속속 감기는 다양한 뮤지컬 넘버가 영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8일 827개 스크린에서 3772회 상영해 50만6118명을 모았다. 누적관객 728만2870명이다. 이미 '쿠푸펀더 2'를 넘어선 국내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쓴 '겨울왕국'은 9일 국내 개봉 외화 흥행 5위인 '트랜스포머'(740만2211명)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엘사가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부르는 '렛 잇고'는 영화 흥행의 일등공신이다.

9일 오후 3시 현재 멜론, 네이버 등 음원사이트에서 주제가인 '렛잇고'는 모두 2위에 올라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인 멜론의

8일 일간 차트 순위에서는 2위를 차지한 '렛잇고'를 비롯해 10위 안에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등 3곡이 포함됐다. 이 곡은 지난달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는 '라이온킹'과 '포카혼타스'에 이어 19년 만에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

유명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담긴 오리지널 버전과 함께 국내 가수들의 커버도 잇따르고 있다. 그룹 씨스타의 효린의 영화 마지막에 흐르는 정식 한국어 버전 '렛 잇고'를 불러 음원을 출시했고 에일리, 이혜리, 이유비, 송승헌, 은가은 등이 부른 곡도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피겨 여왕' 김연아의 경기 영상을 '렛 잇고'에 맞춰 편집한 영상까지 등장해 인기를 끌었다.

음반 판매량 역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은 지난해 12월 5일 출시된 '겨울왕국' OST가 6일까지 3만장 팔렸다고 밝혔다. 겨울왕국 OST는 처음에 CD 한장에 서른 두 곡이 담긴 '스탠다드 버전'이 나온 뒤 이어 정장에 55곡이 수록된 '디럭스 버전'이 출시됐다.

'겨울왕국'은 베스트셀러 순위권에도 각각 변동을 일으켰다. 2월 1~2주(1월31일~2월6일)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는 '겨울왕국' 관련 책이 세 권이나 포진했다.

'디즈니 겨울왕국 무비 스토리북'(에릴리아)이 2위를 차지했고, '겨울왕국' 영어 원서인 '프로즌'(Frozen) 사라 네이션, 셀라 로만·통데일북스)과 관련 동화 '겨울 왕국-디즈니 무비 클로즈업 4'(월트 디즈니사·꿈꾸는달팽이)도 각각 11위와 13위로 신규 진입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지체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시공, 4.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품질팀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